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수놓으신 인민의 어버이

마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넘쳐나는 4월의 이 불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래 『위대한 영상 영원하리』를 뜨겁게 부르고 있다.

천만 자식 한 품에 암고 사랑만을 안겨 주신 숭고하신 그이의 영상 조국땅 어디나 빛나네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계시며 우리의 앞길을 밝히네

부르면 부를 수록 어버이수령님 생각으로 가슴찢어들게 하는 노래이다.

저 멀리 최전선초소에도, 인민생활장상대진군의 거세한 열풍을 일으켜나가고 있는 공장, 기업소에도, 봄빛 흐르는 농장별에도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율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보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가시는 곳마다에 끼어운 사랑의 력사를 새겨가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 인민의 어버이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들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멸의 자유자율을 수놓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려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치적지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01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루쟁에 바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쓰임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수령으로 영생하고자합니다.』

인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 있다고, 나의 하느님은 다른아닌 인민이라고 하시며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고, 그래서 나는 아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가장 투철한 인민판을 지니시고 모든 사과과 활동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신 인민의 어버이 김일성동지!

사람들은 오늘도 수십년동안 아껴 오신 평양시 중심부의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인민대학습장을 웅장하게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을 잊지 못하고 있다.

주제 62 (1973) 년 12월 수도의 중심부를 인민적성격이 두드러지게, 특색있게 완성시킬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일군들과 함께 눈길인 난간제에 오르신 후에 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나

남부터 그토록 아끼시면서 이곳에 인민을 위한 큰 도서관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족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수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여기에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여기 남산제에 도서관을 암기하지만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드롭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뿐 아니라 인민의

공부하는 전민학습의 전당이 건설되게 되었으며 그 이를도 인민대학습당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정성 우리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으로 부터 지나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에는 이런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일군들을 주기로 한번씩 온다는 무서운 큰물로 평양시가 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전투를 지휘하시던 준엄한 전화의 나날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히 무전기앞에

수천명으로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들을 하나하나 찾으시여 그 정형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민, 인민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사색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부강변 영하는 내 조국강산 그 어디나 뜨겁게 어려워하여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다.

자신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양금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늘 천만군민은 인민에 대한 고결한 사랑과 더강, 현실적 복무정신으로 인민생활항상대전군을 전두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삼아 뵈옵고 있다.

주제 63 (1973) 년 12월 수도의 중심부를 인민적성격이 두드러지게, 특색있게 완성시킬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일군들과 함께 눈길인 난간제에 오르신 후에 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나

남부터 그토록 아끼시면서 이곳에 인민을 위한 큰 도서관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족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수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여기에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여기 남산제에 도서관을 암기하지만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드롭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뿐 아니라 인민의

공부하는 전민학습의 전당이 건설되게 되었으며 그 이를도 인민대학습당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정성 우리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으로 부터 지나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에는 이런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일군들을 주기로 한번씩 온다는 무서운 큰물로 평양시가 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전투를 지휘하시던 준엄한 전화의 나날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히 무전기앞에

수천명으로 피해를 심하게 입은

힘들수 있다고,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은 꼭 해낼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안면 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혁명적인 정신을 창조한것을 직접 목격한 증언자라고 크나큰 믿음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부대 지휘관은 경애하는 그이에게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힘차게 말씀하였다.

회원발전소건설장, 여기에 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 출원인상과 엄격을 전하는 이아기들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목표입니다.』

주제 98 (2009) 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어 이곳 군당의 책임임군을 찾으시고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을 잘 살펴주어 한다고, 언제건설에서 군인 큰 물품을 당당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며 발전소건설장의 성과적보장은 위한 귀중한 가르침침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령지방의 기운이 1월초에 제일 추울 때 -3~0°C까지 내려가면서 춥다고, 지금은 불결기인데도 이곳 날씨가 차다고 나직이 되시면서 강변을 거니시였다.

내건설점장을 찾으시였다. 언제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력량성과 생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도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산중에서 진행될 건설이 방대하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기

가 험치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어려운 언제건설공사를 인민군부대에 맡겼다고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리시고는 2012년까지 언제건설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자신이 습관으로 되었다고 말을 끝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회원발전소 건설자들이 대중적영광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벅차왔다.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에!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자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중심고리

당원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하
니 생산이 절로 높아진다.

이것은 무산식료공장을 찾을
때마다 종업원들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얼마전 경에 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육아 뜨겁게 새겨져
있는 공장장을 찾은 우리는 생산
이 잘되는 비결을 놓고 조길순

지배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현시기 지방공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어떤 사업이든지 거기에
는 혁이 있고 중심고리가 있는 법입니다.»

몇 해 전 공장의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다.

해야 할 일 같은 아름다웠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며 산
심고리를 어디에 정착하는가.

식료부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지배인의 생각
은 깊었다.

(공장의 원자재보장에서 기

부산식료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본은 당원료이다.)

이렇게 생각한 지배인은 지방
원료에 의거하는 물류생산공정
을 반드시 꾸려야 하겠다고 결

심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
람들의 견해는 각이하였다.

원인은 이 생산공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이 미
처되어서지 못한데 있었지만 주로

사랑가루를 이용하여 생산을
한 지난 시기의 판습이 뿐이
깊이 남아있는데 있었다.

그는 물류의 우점은 생산자
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사랑
가루와 물류의 단분합량을 대
비적으로 분석하여 내놓았다.

물류의 단분합량이 사랑가루보
다 더 높다는 사실은 사람들에
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실리주의원칙에서 사랑가루
를 쓸 때와 물엿을 가지고 생
산할 때의 식료품생산원가를
간단히 탐색해보니 물엿에 의
한 식료품생산원가가 비할바없
이 낮았다.

이어 공장에서는 군책임일군
들의 지지속에 물엿을 주원료

창성군을 찾으시여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토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일군들은 이 생산공정을 꾸
리는데 필요한 설비들의 기술
적특성을 정확히 조해한데 기
초하여 일부 설비만을 다른데

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군안의
기술자들과 공장자체의 기술
력으로 생산한 식료품은 진강
에도 좋고 그 맛 또한 감미로

았다. 이처럼 하니 적은 지출
으로 물류생산공정을 일식으로
갖출수 있어 현대화사업이 보
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보다 주목할만 한 것은 그 운
영에서 실리가 큰 것이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다른
데서 설비를 가져다 생산공정
을 꾸려 놓았는데 이는 벌방지
대로부터 두께 산물에 이르기까
지 군소재지마다 식료품장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있다.

우리에게 혼란 원료로 생산
의 품질을 높이 올려가는 무산
식료품장 일군들의 사업은 도
처에서 힘 있게 추진되는 군식
료공장들의 현대화실험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된다.

본사기자 전성삼

정들도 거의나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았다.

그랬더니 기업판례에 토익이
되어 좋았고 생산과정에 제기
되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자체
로 풀수 있어 좋았다. 설비제
작과 설치과정에 그 속내를 깊
이 파악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걸린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
나갔던 것이다.

공장에서는 물류생산공정을
꾸려놓은 경기에 토대하여 사
랑, 파자, 빵생산공정을 비롯
한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현
대화하는데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 시, 군들에서 삼포토산물
용하는 것은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는 아주 좋은 일
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처럼
머리를 쓰면 지방
원료를 가지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군내주민들에게 생산
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들이 주시

지방공업활성화에서 나서는 요구

◇ 지난해 11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성군을 찾으시여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토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이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성식료공장
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원료보관대책을 따라세워온으로써 기초식품, 단

물, 산나물장점임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생산
기구를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파실,

산나물을 등 지방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여려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지방공업발전의 전망은 바로 시, 군들에서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는데 있다. 산간
고물들은 우리 나라 어디에나 무진장한 지방
원료들을 효과있게 리용해야 지방공업의 생활
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 시, 군들로부터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늘려야 한다.

산을 건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건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는 등 자기 지방의
조건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
게 내밀어야 한다.

그러자면 자연원료기지와 제배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관리운영하여 주민들이 실
지 먹을 보게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회에서 내놓은

신방침대로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산
지에 놓는 경에 하여야 한다. 일군과 군민들이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에게 혼란 원료로 생산
의 품질을 높이 올려가는 무산
식료품장 일군들의 사업은 도
처에서 힘 있게 추진되는 군식
료공장들의 현대화실험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된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황금산, 보물산
의 세 력사를 펼쳐주시고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의 토대가 실지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원료를 리용하는 도점지표를
설정하고 그 생산을 늘려 군내주민들의 생활
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여려가지 지방원료
원천에서 힘 있게 추진되는 군식
료공장들의 현대화실험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된다.

본사기자 전성삼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홍원군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앞에 지
닌 사회적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풀없는 혼신 сил에 우
리 인민만이 지나고 있는 가
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
가 있다.»

얼마전에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애국열연물공장 지
배인 리금철동무는 우리와 인사
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이 애국 열연물공장
명예는 기단위가 아닙니까. 저
보다도 우리 집단을 네리 소개
해 주십시오.»

그의 부탁에는 진정이 어려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
의 곳곳을 돌아보며 우리는 많
은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만나보
았다. 그런데 이구동성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한결 같았다.

리금철동무는 문에 공장이
달라졌다는 것에 말하였다.

지난 10년간 인민경제계획
을 해마다 1~2%로 넘쳐 수
행한 한 공장의 능숙한 책임일
군, 그는 파악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게 될지 봄을
사실들을 되새겨 보며 지배인과
마주쳤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 40대 중엽의 나이에
비해 꽂혀 보이는 그는 성미
가 어지간히 급한 편이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일가
견이 명백하였고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이 넘쳐 있었다.

우리는 선군시대가 낳은 또
한명의 참된 국주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

근 10년전 가을 어느 날이
였다. 몇 달동안 비어있던 지배
인 직무에 공장에서 부원으로
사업 하던 리금철동무가 임명되
었다는 소식은 사람들은 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30대이면 정 어리다고는
할수 없지만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동기와 변압기

참다운 공장애,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는 일군

3 중 3 대 혁명 불은 기 안 주 절 연 물 공 장 지 배 인 리 금 철 동 무

를 쓰지 않는 생산단위가 없고
절연물이 안 들어간 전기기계
또한 없는 것이어서 켜지 않은
이 공장은 사실 온 나라를 대
상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리금철동무는 어려울 때가 무거웠
다. 공장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서 군심이 커졌다. 지난 10
년 세월 현장기사, 기술준비원,
생산교대장, 절연작업반장, 부
원으로 일해오면서 미흡하고
어설 뿐 축면이 적지 않은 공장
의 어느 구석인들로 모였던가.

그러나 평범한 자기의 김책공
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어엿한 절
연공학기사로, 3대 혁명소조기
연예에 보낼 제품을 가득 실은
벼슬에 업무일꾼들과 함께 올
랐다. 돌아올 때 역시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실었다.

여기서 만족도 유연소비가 절반
으로 줄어들어 넉넉 수십 t 이
나 걸작되었다.

한편 그때까지 공장에서는
구내에서 이런 저런 물동을 운
반하는데 소형프라트보트를 꽉
세워 하는 것으로 알았고 있다.

지배인 리금철동무는 종업원
들의 공장에 대한 발동된다면
이 문제도 일마든지 해결할 수 있
다고 보았다. 그의 밤기에 따
라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간편
한 솔수를 하나씩 만들어 크
지 않은 물동들을 나르기 시작
하였다. 티끌모아 큰 산이라고
여기서 밤에 철망과 함께
단계별 목표들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보다 정
연한 지형체계의 확립, 기술발
전과 원료자재보장의 실행, 설
비현대화와 생산문화, 생활문
제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
자. 그러면서 이 계부터 나는
공장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진
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며 새로
운 사색과 탐구, 실천투쟁의
제 1번수로 살아야 한다.»

공장에 대한 새로운 애착
으로 가슴끓이는 신인지배인의
눈앞에 방대한 전망계획과 함
께 단계별 목표들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이렇게 생기는 리익은 그대
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
화하는 사업에 둘러지게 되었다.
로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목욕탕과 여관 장이 건설되고 구
는 공원처럼 꾸려져 있으며 보이
를 비롯한 생산공정들이 개선
되어 공장은 하루가 다르게 옛
모습을 떨어버리게 되었다.

성미급한 짙은 얼운이 지나친
일속임에 부풀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일련 제고 가위질을 한
번 하는 그의 품품과 기질과 절
약정신, 능숙한 전개력에 런복
하였다. 그려면서도 당장건

이 찾은 지배인의 생산기획용차
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리금철동무는 많은
짐을 실으면서도 일정한 일원
이 할 수 있는 화물빠스를 들여
오자고 군들을 설득하였다.

사람들이 머리를 기우거렸지만
그 후 우월성은 인자 나타났다.

먼저리를 애돌아다니던 회물자
동차에 비해 운행거리가 훨씬
줄어들었던 것이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꾼들이 사업상용
무로 평양에 걸 때에는 해당 단
위들에 보낼 제품을 가득 실은
벼슬에 업무일꾼들과 함께 올
랐다. 돌아올 때 역시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실었다.

여기서 만족도 유연소비가 절반
으로 줄어들어 넉넉 수십 t 이
나 걸작되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운 그는 다
음날 아침 기술준비실을 찾아 문
건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기술문제를 공장의 현
실적인 조건과 리익으로부터
방출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로
발달의 길에 불이붙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
의 높은 뜻이라는 것을 명심합
시다.»

지배인이 놓고 간 문건에서
글리세린대 운용체를 비롯하여
공장의 실정에서 가능성이 새롭
게 탐구한 기술신판각들을 빼
여본 기술준비실원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은 일정을 직도로
로만 대하는 실무적인 태도와
공장일을 책임지겠다는 판관과
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았던 것이다.

원료자재의 대부분을 다른데
의존하는 애국열연물공장은 의
적요인에 따라 생산이 오르내
리는데는 짐작도 되겠는지 당장
은 누구도 가능할 수 없었다.

그는 종업원들을 이를고 멀리
현지에 나가 대용기류수집전투
를 직접 지원하고 전송보단
원기를 훨씬 낮추면서도 질 좋은
질수 있는 전용기를 열어놓았는데...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공
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
대적인 절연물생산공정설비조
립을 보름동안에 끌어내는 지
배인의 발기적 고민과 헌신을
기록하면서도 최상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이 힘써나 헌상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나라의
부담을 덜고 보다 큰 보람을
주는 단위로 되겠는지 당장
인지도 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배인 리금철동무는
어떤 경우에도 공장이 나라의
부담을 덜고 보다 큰 보람을
주는 단위로 되어야 한다는 자
세와 힘으로 모든 열정과 지
혜를 강구리 치하였다.

몇몇 점에 있은 일이었다. 날
로 우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창조의 기수였다. 이 날에 절

6 5회를 맞으며 주요절연물생
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통
이 큰 일관을 벌여놓았다. 그
런데 대상단위에서 여전히
사정으로 설비제작과 납기일기
을 펴거나 드리며 보내오는 정

책으로 공장에서는 절연와니
스생산의 기본원료로 쓰이는
기름을 보상받기 어렵게 되었다.

다. 일부 일군들은 다른 단위
들의 도움을 받아 당장 바쁜
고비를 넘기자고 하였다.

그러나 지배인 리금철동무의
장정은 달랐다.

«발동의 불을 끄는 방식은
별로 편리이다. 나라의 경제발
전에 있어서는 안될 절연물
제작과 종업원들은 현장에
마지막설비부분을 들여놓고
도 손뼉을 높이고 있다.

그들에 비비는 지배인 리
금철동무의 머리속에서는 엇갈
리에 두가지 결심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불가피한 조건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생간공정현대화는 공장자
제로 기술문제를 공장의 현
실적인 조건과 리익으로부터
방출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로
발달의 길에 불이붙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
의 높은 뜻이라는 것을 명심합
시다.»

지배인은 놓고 간 문건에서
글리세린대 운용체를 비롯하여
공장의 실정에서 가능성이 새롭
게 탐구한 기술신판각들을 빼
여본 기술준비실원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은 일정을 직도로
로만 대하는 실무적인 태도와
공장일을 책임지겠다는 판관과
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았던 것이다.

원료자재의 대부분을 다른데
의존하는 애국열연물공장은 의
적요인에 따라 생산이 오르내
리는데는 짐작도 되겠는지 당장
은 누구도 가능할 수 없었다.

그는 종업원들을 이를고 멀리
현지에 나가 대용기류수집전투
를 직접 지원하고 전송보단
원기를 훨씬 낮추면서도 질 좋은
질수 있는 전용기를 열어놓았는데...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공
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
대적인 절연물생산공정설비조
립을 보름동안에 끌어내는 지
배인의 발기적 고민과 헌신을
기록하면서도 최상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이 힘써나 헌상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나라의
부담을 덜고 보다 큰 보람을
주는 단위로 되어야 한다는 자
세와 힘으로 모든 열정과 지
혜를 강구리 치하였다.

몇몇 점에 있은 일이었다. 날
로 우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창조의 기수였다. 이 날에 절

신을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
장을 잘 알고 계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일 잘하
는 이 공장에 지금까지 10여
차례나 감사를 보내주신 것이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공장, 기업
을 찾았지만 소식에 접할 때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자기

들의 일터에도 장군님을 보시
고 싶은 한결같은 소망을 감추
지 못한다.

그때마다 지배인 리금철동무
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나의 심정도 다를 바 없습
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어
떤 경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리의 절연물생산대에 걱정

하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공장에 영광의 날
이 온다면 그 시각은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있기에
절연물문제는 마음놓고 대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남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모두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안주절연물공장 지배인 리금
철동무는 이런 깨끗한 향상과
신조로 오늘도 삶의 자유자족
을 쟁강으로 수놓아가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원석

리금철동무 (가운데)

하여야 한다.

모판비료를 제재에 주어 효
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정
보당 총질소비료는 모판비료
와 분입미료를 포함시켜 재
산하여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한다. 속성과 영양
이 행성화된다.

리금철동무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에도 공장이 대로 풍요로운
생

현 시대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사발전의 기본방향대로 전진해나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사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상과 헌신에 정확히 들어맞는 혁사의 진리, 강령적 지침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초는 참으로 복잡다단한 시기였다. 예상치 않았던 사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다. 국제무대에서는 세계 『유일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의해 세계가 일극화의 방향으로 나갈것이라는 문론들이 나돌았다. 진보적인 유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우려의 감정이 절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운는 행운을 치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격려를 받는 자리에서 그가 제기한 질문들 가운데는 당시 시대의 모습과 그 전망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을 만나주시고 담화를 하신 날은 주체 80(1991)년 9월 26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나미』 서점 사장에게 제2차 세계대전 후 계속되어온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정치세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하여,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둘

혁사발전의 기본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여

있는데 대하여 개괄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인류가 자주적인 새 세계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생겨난 혁사의 소용돌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를 끌어다가 향하기 위하여 혁사의 발전과정을 전반적인 편판속에서 보아야 하며 현상만을 볼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유감스럽게도 일부 사람들은 송서간 행정체제의 붕괴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을 놓고 마치도 새 것과 늙은 것과의 투쟁에서 낡은 것을 폐지하고 혁사적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며 혁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으나 혁사 발전의 방향은 달라질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나같이 살려는 것은 자주적인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기초한 인류의 리상이며 이랑 한 새 세계를 지향해나가는 것은 혁사발전의 기본방향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변할수 없는 것처럼 인류의 리상도 변할수 없으며 혁사발전의 방향도 결코 달라질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의 담화에서 현시대가 전환의 시대, 경동의 시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자주적인 새

세계에로의 전환이며 그 전환을 가要做到 예속의 낡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려고 토벌적으로 책동하였다.

역사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판단과 타월한 선견지명앞에서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은 놀라움과 경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만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서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접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도 감동을 금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20년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사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전적 정식회의 10년이면 강상이 변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현시기에 와서 10년이란 세월은 시대의 변화속도로 빠를 때까지의 수십, 수백년 잦잡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국제정치 환경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10년이 두들기를 마감하고 있다.

1990년대초에 비해 볼 때 많았던 것은 물론 사회적, 국제정치 환경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10년이 두들기를 마감하고 있다.

세계정치구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물론 행정구조가 허물어진 이후에도 제국주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세계제제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위에 의거하여 지

배와 예속의 낡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려고 토벌적으로 책동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하여 큰 전쟁 말도 여례처에 벌어졌다. 1990년대말에 있은 발칸전쟁과 21세기 초에 벌어진 아프리카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일국세계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별린 지배주의, 폐권주의의 강점과 전횡에 힘으로 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일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벌린 또 다른 행동은 여러 나라들을 저들의 종속물로 전락시키기 위한 『색깔혁명』이다. 미제가 『색깔혁명』이라는 간판밑에 선전수단들을 정치적 압박, 경제정책 등을 걸어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 주고 있다.

세계의 다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를 일국화하려는 미국 등 방면으로 별린 심리모략전에 의해 일부 나라들에서 첨미정권들이 세워지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아무리 폭력과 심리모략전에 의거하였어도 결코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제왕』으로 될수 없다. 전진도상에 장애가 가로놓인다고 하여 혁사가 되돌아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나미』 서점 사장에게 제2차 세계대전 후 계속되어온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정치세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하여,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둘

들이 신홍경제국으로 떠올려 낡고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금융통화체계에서도 다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세계는 실각한 금융 및 경제위기속에 허덕이면서 나날이 쇠퇴몰락해 가고 있다.

이것은 인류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년전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벌써 벌써 인류가 복잡한 경제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전진해나갈데 대하여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 문제,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할데 대한 문제, 아시아문제를 아시아인민들의 공동의 요구와 힘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사심없이 협력할데 대한 문제 등이 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다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등 방면으로 별린 심리모략전에 의해 일부 나라들에서 첨미정권들이 전진과 나란히의 지향과 의지의 산물이다. 이로 하여 제국주의세력이 박탈적으로 추진하던 세계의 일국화책동은 파트너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

국제경제질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물질적 조건들을 마련해 왔다. 세계가 정보산업시대에 확고히 들어섰다. 정보산업기술이 경제전반에 도입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이끄는 경기적역할을 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가 혁신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하는데 위력을 고무적 기치로, 주동력으로 되었다. 이 사상과 로선은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 민들이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투쟁하여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가 혁사발전의 기본방향에 맞게 전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업무를 실현하려면 아시아인들이 먼저 아시아를 자주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실현 방도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거기에는 아시아인민들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부동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 문제,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할데 대한 문제, 아시아문제를 아시아인민들의 공동의 요구와 힘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사심없이 협력할데 대한 문제 등이 들어있었다.

1990년대는 물론 새 세기 들어선 이후에도 아시아인민들은 제국주의의 분열리간 간동에 끌어들여온 세계를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벌써 인류 인구가 복잡한 경제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전진해나갈데 대하여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 문제,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할데 대한 문제, 아시아인민들의 공동의 요구와 힘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사심없이 협력할데 대한 문제 등이 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사발전을 멀리나가는 주제도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21세기를 앞당겨 혁사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지나 방황이 고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사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세계의 주인은 인